

한가족 큰잔치 송광종합복지관

송광종합복지관(관장 도제)은 10월 28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관장 취임식 및 지역 내 장애우와 노인들을 위한 '한마음·한가족 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17번째 맞는 이날 행사는 1부 취임식과 2부 지역 어른 점심공양 및 축하공연, 주민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고 스님(송광종합복지관 이사장),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도제 스님은 취임사에서 "송광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사에는 지역의 최고령 어르신에 대한 장수상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가족의 화합을 이끄는 가족상 시상식과 노래자랑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웅전 낙성법회 봉행 태고종 광주 법륜사

광주 신도심에 해당하는 서구지역에 전통과 현대식이 조화된 수행공간이 완공돼 불교포교 활성화가 기대된다.

태고종 광주 법륜사(주지 월인)는 10월 25일 천불이 봉안된 설법전과 대웅전 낙성법회와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중앙원로의 원인 지암·지허 스님,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금평 스님(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장), 김영진 국회의원,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을 비롯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지허 스님은 법륜사에서 "불교의 수행은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좋은 도량은 많은 이들이 와서 마음공부를 하는 곳"이라며, "법륜사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부처님을 알려주는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인 스님은 경과보고와 함께 인사말에서 "사찰 창건 당시에는 인적이 없는 오지였으나, 지금은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도시 중심지가 되어 사람의 변화가 필요했다"며 "앞으로 많은 포교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토피 없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선운사, 아토피 낫는 이색 템플스테이 ‘눈길’



10월 23~25일 선운사에서 열린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어린이가 어머니와 염색체험을 하고 있다.

아토피는 제2의 천행(天刑)이라 불릴 만큼 완치가 어렵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려 눈길을 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10월 23~25일 사찰의 자연친화적 환경과 생활방식 체험을 통해 아토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이색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아토피 환경친화학교로 지정된 전북 진안 조립초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30여 명이 동참했다.

참가 학생과 부모들은 화확조미료가 들어있지 않은 전통 사찰음식 만드는 법, 천연조미료 만드는 법, 녹차잎과 황토를 이용한 천연염색 등을 배웠다. 또, 녹차밭으로 이동해 차밭을 따고 꽃을 이용한 꽃차 만드는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사찰의 생활방식을 체험했다.

특히 밭우 공양과 숲속 걷기 명상은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위축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자신

감을 북돋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다 아이의 아토피가 심해 진안 조립초교로 전학 왔다는 김문숙(전북 진안 조립초교 42세)씨는 “도시 학교에서 아토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왕따까지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선

운사 산사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친화적인 생활양식과 식생활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고 간다”고 말했다. 이어 선운사는 29일 전북겨레하나와 함께 전주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남북청소년지킴이 615인의 밤’

을 개최했다.

전북겨레하나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는 이경옥 행정부지사와 최규호 전북교육감, 최규성 국회의원을 비롯한 남북청소년지킴이 615인을 비롯한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법만 스님은 “나이와 종교, 직업은 달라도 남북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 하나”라며 “지난 3년간 북한 청소년들에게 보낸 교과서용 종이 62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모금된 후원금은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담아 북한 학생들의 교과서용 종이 지원, 중고교 평화통일교육, 청소년 평화통일 기자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음악 페스티벌 개최

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와 함께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 함께하는 우리음악 페스티벌이 펼쳐져 화제다.

광주지역 유일한 불교계 외국인단체인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10월 18일 총장로축제와 열리고 있는 광주 금남로에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6명의 다문화 가정 주부들이 펼치는 다문화 두드리 사물놀이와 캄보디아 시낭송, 네팔 음악, 태극연주, 필리핀 이그랏 댄스, 캄보디아 노래, 스리랑카 노래(북), 인도 춤을 선보였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다국적 팀으로 이뤄진 사물놀이팀은 매주 3시간씩 3개월의

연습기간을 통해 배운 풍물공연을 이날 선보여 참여한 광주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각 나라의 전통춤 선보인 필리핀 이그랏 댄스, 인도 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필리핀 전통춤 공연한 5년차 주부 알린다(한국명 박희진·32)씨는 “친구들과 같이 참가하여 너무 기쁘다. 연습하면서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고 참가소감을 이야기 했다.

행사를 준비한 이주성 센터장은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은 불교국가에서 큰 경우가 많다. 사찰에서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062)962-339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시민의 평안 기원합니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 무등산 산신제 봉행

“광주를 돌보는 수호산 이시여, 무등산을 보호하고, 광주시민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광주의 어머니산이라 불리는 무등산 산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의식이 진행됐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지각)는 10월 21일 무등산 장불제에서 회원스님과 전통불교영상화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무등산 산신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900m 높이의 장불제에서 법회와 의식과 영산재에 이은 축원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지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무등산은 광주시민의 평온한 인식처이다. 우리 스스로 무등산을 아끼고 사랑해야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고



10월 21일 무등산 장불제에서 봉행된 산신제 모습.

강조했다. 한편, 무등산은 광주 도심에서 대중교통으로 20분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근교에 위치한 높이 1187m의 명산으로 산세가 웅대해 성산(聖山)으로 알려져 있다. 봄 철쭉,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등의 사찰경관이 절경을 이루고 많은 절과 유적이 있는 산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소운 첫 번째 ‘마음’ 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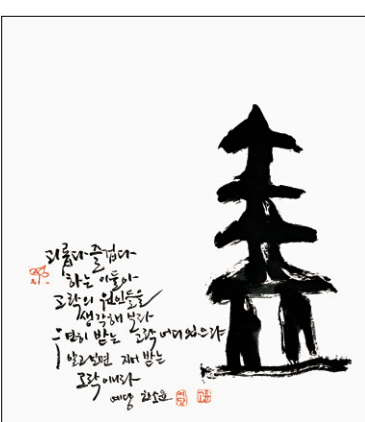
2일부터 익산 송리에술회관에서

익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서예가 한소운 작가의 첫 번째 ‘마음’전이 10월 27일~11월 2일 예술의전당에 이어 11월 2~6일 익산 송리 예술의전당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법정 스님의 글과 참회문, 정호승 신인의 시, 연꽃등 글씨와 수묵화 20여점을 선보인 이번 전시는 스님과 유명인의 법어와 시를 아름다운 선과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다.

익산에서 활발한 불교활동을 하고 있는 한상현 김덕순 부부의 차녀인 한소운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어린시절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틈바구니와 대불전에서 불교 활동을 통해 내면 속 깊은한 고통의 마음이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한소운 작가는 “그동안의 공부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소운 작가의 작품 '고락의 노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늘 고민하며 불법과 대중이 좋아하는 작품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소운 작가는 원광대 서예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활발한 작품활동과 함께 익산도서관, 시민문화강좌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들에게 서예를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민 ‘하나’ 된 축제한마당

영암 도감사, 제4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개최

영암 도감사(주지 월우)는 10월 24일 도선국사 탄신 제1182주년을 맞아 제4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도선국사의 뜻을 기리고 재조명하고자 열린 이번 예술제는 도선국사 대례제를 시작으로 도출 김용옥 교수의 특별강연회, 혜성 스님의 차 이야기, 군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장복수화가 전시회 등이 열려 군민이 하나된 축제한마당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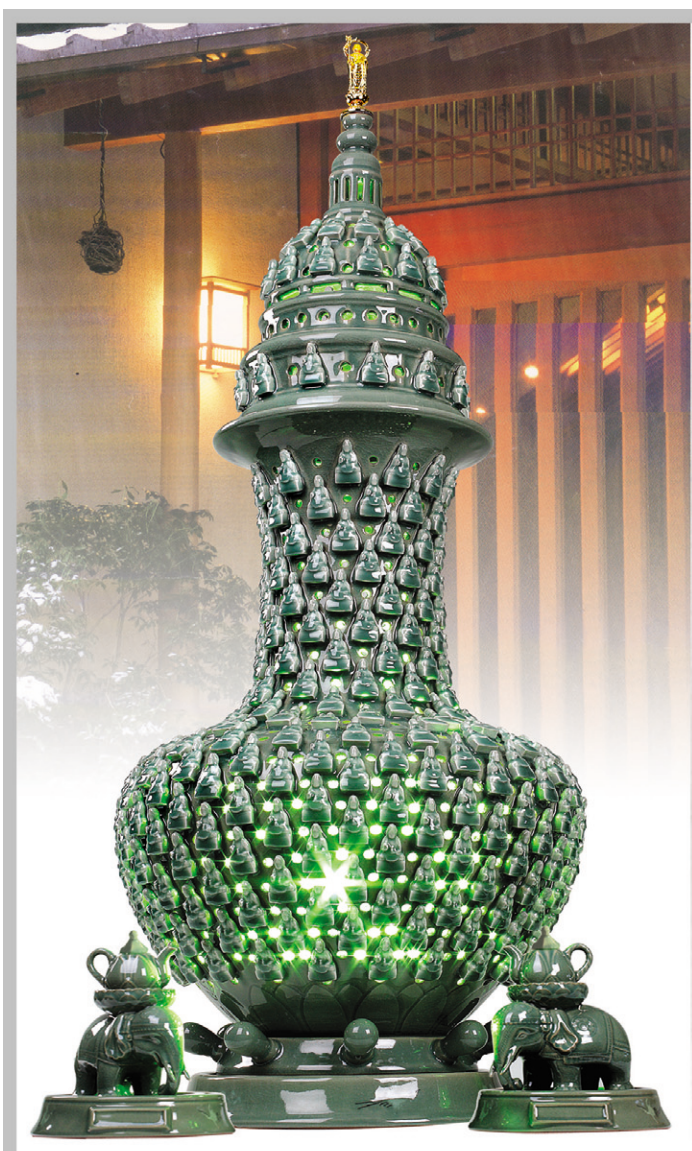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해 각 사암스님, 김일태 영암군수, 영암군민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월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선국사는 영암에서 태어나 비보공수를 통해 인간과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을 발원했다”며 “도

선국사의 뜻을 되새겨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도출 김용옥 씨는 ‘효경과 자녀교육,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유가의 효가 중요할 것”이라며 “부모는 중경에서 보여 주듯 불교의 효는 자비를 바탕으로 둔 보은(報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자 연예인 김용림과 마야, 진주아, 박정식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와 사진으로 보는 도감사와 풍수형국 모형도, 장복수 화가 전시회, 도자기 만들기 등도 열렸다. (061)473-9734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기사 넘쳐 이번 주 부러나온자는 쉽다



전생과 현생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 탄생!!!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법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법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사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법륜대에 복사하게 되어 전생에 묶은 빛, 해탈이 복 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삼강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로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계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특허의기술

□제품명: 순금천불명인법륜대
□재질: 대한민국 삼강청자
□높이: 110cm □원뿔폭: 45cm
□발판폭: 30cm □무게: 25kg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불모 청오스님 약력

- 1965년 출가입산
- 통도사 보광전 부처님 조성
- 법어사 내원 부처님 조성
- 해운대 해운정사 금동 천수천안 조성
- 서울 동국대 대학원(불교학) 수료
- 법무교회 정법회(부산) 초대회장
- (차)와일드매 자연이 준 청다향원장
- 국가관 투철 1037호 표창장수상
- 법륜대(윤장대)실용신안특허취득